

광주시·시교육청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U대회 준비·학교용지 부담금 전용 쟁점

광주시의회 "준비 많이했다" 의욕·꼼꼼한 진행 기대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열린 광주·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복지 등 시 행정과 교육 전반에 걸쳐 집중적인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9일 광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 상황과 농산물시장 농약 잔류검사 미비, 시 교육청의 학교용지 부담금 전용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들은 특히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꼼꼼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행정자치위원회는 U대회 선수촌 건립 개발사업 및 준비상황, 야구장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 문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차질, 용역과 계약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행정위는 이를 위해 의원 간 업무 분장까지 마친 상태다. 환경복지위원회는 광주지역 농산

물 도매시장의 잔류농약 검사 미흡과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미집행, 빛고을 노인센터 운영문제,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위법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환경위는 의원 간 역할분담을 통해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문제된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대안제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위원회는 시 교육청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한 점과 특수교사와 보건교사 부족으로 인한 무자격 교사 배치 문제, 각 학교들의 매점·자판기 운영 실태 문제점 등

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 산전건설위원회는 광주시와 투자유치 기업들의 양해각서(MOU)체결 이후의 투자 실행 상황과 LH공사 자금난으로 인해 LH공사가 진행중인 산업단지과 택지지구 차질에 대한 방안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춘문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기존의 나열식 지적보다는 한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이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형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의원들도 많은 준비를 했다"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아웅산 수처여사 언제 석방되나

가택연금 시한 13일 종료...미얀마 정부 "11월 중순경"

'제5회 광주인권상'(2004년) 수상자이자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처여사의 석방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얀마 총선이 지난 7일 종료된데다 가택연금 시한(13일)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아웅산 수처여사의 아들이 미얀마 입국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0년만에 모자상봉의 감격을 누릴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수처여사는 군부 독재에 비폭력으로 맞서면서 최근 20년 동안 14년 가량을 구금상태로 지내왔다. 미얀마 군정은 국민의 절대적인 신망을 얻고 있는 수처여사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압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의 가택연금 시한이 다가오면서 석방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89년 첫 가택연금 조치를 당한 수처여사는 1995년 풀려난 뒤

비폭력 민주화 운동을 이어갔고 수처여사의 활동에 위협을 느낀 미얀마 군정은 수처여사를 2000년 다시 가택연금시켰다. 수처여사는 2002년 가택연금이 해제됐으나 2003년 또다시 가택연금 조치를 당했고 매년 연금조치가 연장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처여사의 가택연금 시한은 오는 13일 종료된다. 수처여사의 신병 처리와 관련, 니얀 윈 미얀마 외무장관은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에서 개최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수처여사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총선 이후인 11월 중순경 가택연금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밝혀 석방 가능성이 시사됐다. 그러나 총선 직후 국경지대에서 소수민족 반군과 정부군이 충돌하는 등 미얀마 정국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서 군사정권이 수처여사의 석방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얀마 입국 비자를 얻기 위해 태국 방콕에 머물고 있는 수처여사의 아들 김아리스(33)는 "어머니의 석방여부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 "미얀마 군정은 예측할 수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리스는 "지난 2000년 미얀마에서 어머니를 만난 이래 현재까지 모친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서 "이번에 입국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수개월 뒤에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미얀마 정부는 수처여사 등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해 그들이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원기자 galee@연합뉴스



정부, 국군 UAE 파견동의안 의결

정부는 9일 김홍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 국군 150명 이내를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UAE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 부대와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를 파견 부대의 임무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동의

안을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반대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소말리아 아덴만에 배치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동의안'도 처리했다. 또 결혼 이민자 권익 향상을 위해 중개업자의 요건을 정하고 결혼 중개상대방에게 혼인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G20 내일 열려요" G20 서울정상회의 공식개막을 이틀 앞둔 9일 오후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건물에 G20을 홍보하고 있는 김연아 선수의 대형 사진이 내걸려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감독 아이웨이웨이 한때 가택연금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감독이며, 베이징 올림픽 주 경기장을 설계한 중국의 건축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가 한때 가택연금 조치를 당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9일 "아이웨이웨이가 상하이에서 자신의 스튜디오를 옮겨오는 퍼포먼스를 벌이려다 중국 정부로부터 지난 5일~7일 가택 연금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신변에는 큰 문제가 없고, '유럽 활동을 위해 조만간 중국을 떠날 것'이라는 이메일을 재단에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상하이에 2년의 설계와 건축을 거쳐 스튜디오를 완성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불법미수 건설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정부의 통지를 받고 이 같은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건축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술작품을 발표, 주목받고 있으며 자신의 블로그에 반정부 인사들의 이야기를 알리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름다운 죽음 '웰다잉' 국내 첫 가이드라인 제정

한국죽음학회 12일 공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웰다잉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한국죽음학회(위원장 최춘식)는 오는 12일 서울대학교병원 내 어린이병원 임상 제2강의실에서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 공표식과 유언장 서명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학회가 마련한 웰다잉 가이드라인은 ▲죽음의 준비 ▲병의 말기 진단 전에 해야 할 일 ▲말기 질환을 알리는 바람직한 방법 ▲말기 질환 판정 후 환자의 대처요령 ▲말기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해야 할 일 ▲임종 직전, 죽음이 가까워올 때의 증상 ▲말자 보내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사망자 수는 24만 7000명으로, 하루 사망자가 677

명에 달했다. 이는 연간 100만명 이상이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죽음을 경험한 셈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죽음 문화는 자살자 증가 추세에서 보듯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 학회는 특히 웰다잉을 위해 유언장을 꼭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필 유언장의 경우 별도의 공증절차 없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만, 유언장에는 전문(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 날인의 5가지가 필수조건이라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유언장에는 임종 방식과 장례방식, 유산상속, 금융정보 등도 함께 적어야 하며, 의식불명 상태가 됐을 때 받을 의료행위를 미리 지정하는 '사전의료의향서'도 별도로 써 놓아야 한다고 학회는 권고했다. /연합뉴스

광주 '창조도시' 윤곽 그려간다

난상토론·세미나·워크숍 등 잇따라 개최

광주시가 민선 5기 시정 기조이며 목표인 '창조도시'를 주제로 난상토론, 세미나, 워크숍 등을 잇따라 열고 있다. 창조도시라는 주제가 일반인은 물론 공직자에게마저도 다소 추상적이며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다 이를 광주 여건에 맞게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5일 광주시청 5층 사무관 10여명과 광주발전연구원 박사들이 함께 '창조도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난상토론을 가진데 이어 지난 8일 오후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김세용 고령대학교수, 강병수 충남대학교수, 최종일 조선대 교수 등 국내 저명인사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동국 광주정책연구원장, 김하림 조선대 교수, 문기

영의 쾌적성(amenity)을 향상시켜 기업과 근로자를 광주로 유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 경제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최종일 조선대교수는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광산업과 문화산업이 여전히 소규모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도 광주 시민의 삶과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며 "서비스업과 첨단제조업, 문화산업과의 융합이 필요하며 광산업 및 정보기반산업을 통해 문화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이들 전문가들의 발표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달 '창조도시'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아이엘리시아 아이엘리시아 검색. 프리미엄 뷔페. 500석 완비.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부동산 미분양. 광주의 강남! The 11 더실아파트. 25% 파격할인! 최대 1억2천만원 할인! 고층 대물 물건 최다 보유! 44py 54py 65py. 공동중개 문의환영!! 제석공인중개사 분양문의 062)673-3100

신축 매매·임대 (원룸·투룸). 원하시는 물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에서 이전까지). 주 소 동구 개림동 남구 방림동. 대지m2/형 294/88.94 383.1/115.89. 대지m2/형 651/193 650/197. 매 매 금액 6억1천만원 (용자 1억 4천만원포함) 7억9천만원 (용자 1억 5천만원포함). 건물 내역 원룸14개·투룸2개 4층 1층, 상가 점포 3칸 원룸 18개, 4층주인세대(아파트 50명형, 옥실 월동 최고급 자재)풀옵션, "수익성최고!"

전원별장주택. 전남 보성 전원별장 주택 대지 350 건35 단층솔리브 창고30평 교통통과 조용하고 가격저렴 즉석 입주가 몽땅 1억 주인적. 5000평. 전남 보성 계획 관리 대로접 5000평 완전평지 현황과수원 아파트 빌라 연수원 귀농동 최적 개발업자 환영 몽땅 3억 주인적. 문의 011-837-3140